

68혁명·촛불항쟁은 현재진행형의 역사다

저항의 축제 해방의 불꽃, 시위

송찬섭 외 지음



“...이에 조선 팔도가 마음을 합하고 수많은 인민이 뜻을 모아 의로운 깃발(義旗)을 들어 보국안민할 것이다. 이를 죽음으로써 맹세하는 바이다.”

1894년 3월 20일(음력), ‘늑두장군’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총봉기를 알리는 포고문을 발표한다. 진군하는 동학군 대열 선두에는 ‘보국안민장’의(輔國安民將)라는 큰 깃발과 인(仁)·의(義)·예(禮)·지(智) 깃발을 세웠다. 또 포대와 재인들이 태평소와 나발, 북을 울렸다. 관군과 일본군이 전투후 노획한 농민군 물품에는 무기류 외에도 어김없이 상당한 분량의 깃발이 있었다. 지금도 시위대 앞에는 깃발과 풍물패가 자리한다. 시대가 흘러도 시위 현장에는 격문과 구호, 노래, 선전포스터 등이 함께 한다.

김양식 청주대 영화영상학과 교수는 “깃발이 농민군의 중요한 무기 역할을 한 것은 그 자체가 농민으로 구성된 군대의 특징을 잘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농민군의 저항문화이자 농민적인 무기 수단이며, 농성을 대비하는 상징물이었다”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경험과 정신은 한국 근현대 역사 발전의 수월지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꼽는다.

신간은 지난 2017년 5-7월 민중의 저항과 혁명의 역사를 ‘시위문화’라는 관점에서 조망했던 ‘역사학연구소와 함께 하는 역사서당’ 강좌 가운데 일부를 글로 다듬어 펴낸 것이다. 송찬섭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한 9명의 필자들이 국내외 주요한 9개의 시위-저항 문화를 살핀다.



촛불집회는 ‘촛불’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급진성으로 정치를 새롭게 정의했다. 지난 2017년 3월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촛불집회. <광주일보DB>

국내 사례는 ‘1862년 농민항쟁’(송찬섭 교수)과 ‘동학농민혁명’(김양식 교수), ‘3·1 운동’(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4월 혁명과 6·3항쟁’(오제연 성균관대 교수), ‘촛불집회’(남영호 신한대 교수)를 들여다본다. 또한 외국의 경우는 ‘파리코뮌’(김종원 경희대 교수)과 ‘러시아 혁명’(황동하 전북대 교수), ‘스페인 내전’(이원근 하와이대 교수), ‘68혁명’(정대성 부산대 교수)을 다룬다. 저자들은 운동사 또는 혁명사 연구라기보다 ‘격정의 역사’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을 시도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초들이 중심이 된 시위-집회는 역사의 물길을 바꿨다. 송 교수는 신간 ‘머리말’에서 “시위문화란 시위대가 상징적 행위, 곧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 적의 상징을 불태우거나 부수는 것, 자신의 요구를 적은 신문과 팸플릿 등

미의 ‘정치’가 대중 사이에서 다시금 의미를 획득하는 새로운 시대”고 분석한다. ‘68혁명과 시위문화’를 집필한 정대성 교수는 “논쟁이 있어야 역사도, 현재를 둘러싼 희망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프랑수아 사외아 피에르 부르디외의 말을 들어 “68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생생한 현재의 증거이다. 68은 빛나는 열정과 혁명적 상상력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 오늘을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한 ‘현재진행형의 역사’다”라고 강조한다. 시위-저항 문화로 살펴본 ‘촛불집회’와 ‘68혁명’ 등은 독자들에게 보다 생동감을 안겨준다. 19-20세기의 격랑을 헤쳐나오려 애쓰는 민초들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서해문집·2만4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얼룩말 상자**=언어와 언어, 세계와 세계 사이의 인과를 새롭게 응시하는 시집. 배진우 시인은 ‘단정함’이지만 들여다볼수록 송곳 같다’는 평을 받으면서 문예중앙으로 등단했다. 이같은 특성을 보여 주듯 ‘싸움’, ‘땀’, ‘도시’, ‘비’와 같은 일상적 소재를 날카로운 시안으로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아포리즘’이 시집 전반에 흐른다. 사물과 인간의 삶에 집중하면서 존재들에게 힘을 주는 시적 발화는 희망적이다. <민음사·1만2000원>

▲**반도체 열전**=‘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에도 맹아가 되고 있다. 1940년 이전 벨 연구소의 트랜지스터 개발로부터 시작된 반도체의 역사는 오늘날 AI, 로봇 기술 등으로 뻗어 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 됐을까? 반도체 역군 중 하나인 유용환 박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입성한 뒤 반도체기업 인텔 등에서 메모리반도체를 개발했다. 그가 선진화된 기술을 접하면서 국내산업에 기술력을 도입했던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다. <비즈니스맵·1만9800원>

▲**기후위기, 무엇이 문제일까?**=기후위기가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지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환경파괴 문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끝없는 사라지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며, 벚꽃이 지는 시기는 온난화와 맞물려 점차 빨라지고 해수면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탄소배출과 기후테크,



에너지 패권 경쟁이나 기후중립시대와 같은 주목받는 개념을 되짚어보면서 기후문제를 정면승부하는 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북카라반·1만5000원>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이름 없는 이들은 일터에서 왜 자꾸만 죽어가는 것일까. 하루 평균 두 명은 산업재해로 인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사고의 원인과 잘못을 분석할 때면 대부분 노조, 사측, 유족 등은 대립각을 세우는데, 그 원인 등을 분석한다. 그러면서 산재의 구조적 원인과 위험요소, 산재 유형 등을 가르쳐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재난 상황을 대비하도록 돕는다. <한겨레출판·1만8500원>

멀어진 시원으로 회귀하는 비밀 통로 하나쯤 가져보자

사막아, 사슴아

최윤 지음



최 윤 소설가는 언젠가부터 ‘마중물 통장’을 만들어 사용중이다. 좋은 문화 기획안을 들고 온 청년들을 도와주고는 싶지만 급진적인 사정이 여의지 못하니 ‘지인들’을 소개하고는 하는데, 자신 때문에 예전에 없던 돈을 쓰게 된 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현으로 작가는 그 통장에 적은 금액이나마 넣는다. 어른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영화 ‘꽃잎’의 원작인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의 작가도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한 소설가 최 윤이 산문집 ‘사막아, 사슴아’를 펴냈다. “그냥 스러져버릴 일상의 감흥을 솔직하게 쓰고 싶은 맘이 생길 때” 써 내려간 글 37편을 묶어낸 책으로 첫 산문집

‘수줍은 아웃사이더의 고백’ 이후 30년만에 나왔다. 소박한 일상과 여행, 문학 등에 대해 쓴 글은 ‘인생유행(人生遊行)’, ‘사막아, 사슴아’, ‘빛이 머무는 동안에’ 등 3부로 나눠 실었다. 다수의 모임이 정지된 팬데믹 기간에 그는 ‘속닥속닥 식사 모임’을 진행했다. 자신이 열 가지 낱짓한 레시피를 익혀 한 번에 한 가지씩 음식을 만들고, 오해와 소통의 부재로 절기롭게 된 지인 등과 1대 1 많아야 1대 2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속마음을 열어놓는 모임이다. “맛있는 식탁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는 앙리 드 몽테스칼랑의 말에 동의하는 그는 레시피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고군분투중이다. 성인이 된 아들과 1년에 한 두번 떠나는 둘만의 여행은 “왜?”로 시작되는, 혹은 ‘하지 마’로 끝나는 잔소리를 지양하며 서로의 취향을 맞춰가는 의미있는 여행이다. 사막에 대한 화보와 책을 읽고 여러 종류의 사막을 방문해 한 때 ‘사막 전문가’였던 그는 “온 존재의 시원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사막의 순수한 비어 있음”을

이야기하며 누구나 아주 멀어진 시원으로 회귀하는 비밀의 통로를 하나쯤 가져보라고 권한다. 작가가 풀어놓는 작가론도 흥미롭다. ‘이별(離別)에게’ 등의 시를 통해 김현승을 들여다본 ‘사계절의 만난 풍경처럼’, 알베르 카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카발리의 사람들’ 등이다. 그가 책에서 언급한 책들도 눈길을 끈다. ‘내 인생의 책’으로 꼽은 조르주 페렉의 ‘인생 사용법’,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영화화한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 프랑수아 모리아크의 ‘사랑의 사막’,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이다. 책에는 또 2019년 캘리포니아대학교 한국학과에서 진행한 ‘현대를 극복하는 공감과 환대’, 2021년 서울국제작가축제 폐막 강연 ‘문학과 함께 달려갈 세상에서 더 나은 인간성의 격을 문학에 기대하며’도 실렸다. <문학과 지성사·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어린이 야구 상식**=야구의 역사부터 ‘baseball’을 왜 ‘야구’라고 부르는지까지 알려주는 어린이들의 야구 바이블. A부터 Z까지 야구에 대한 기초상식부터 세부 룰을 알려준다. 포스트시즌, 더블헤더 등 기본이 되는 용어와 그라운드 크기, 볼넷의 역사, 포스아웃, 클리닝 타임 등 어린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야구 상식들이 실려 있다. <블루무스어린이·1만4800원>

▲**나비의 속담 모험**=초등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총 156개의 속담을 공부할 수 있다. ‘약방에 감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 ‘강 건너 불구경’ 등 풍자와 해학이 깃든 우리 표현을 담은

다. 고양이 집사 ‘나비’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 속담의 유래부터 용례를 둘러볼 수 있다. 비슷한 속담도 함께 제시돼 있어 의미를 한 번에 익히기 좋다. <보리·1만4000원>

▲**그림책 만들기 트레이닝**=그림책을 제작하는 과정을 삽화로 보여준다. ‘거울아, 거울아 그림책’, ‘시 그림책’ 등 종류별 그림책을 소개한다. 카드의 중앙을 접고 왼쪽 반에 글, 나머지에 날씨를 그려넣는 ‘날씨 그림책’. 자신의 가장 오래된 기억을 생각해 자유로운 화면 수로 표현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 그림책’ 등 가짓수도 다양하다. <문학과지성사·1만7000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